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1, 낙태, 파트 2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낙태, 파트 2입니다.

좋아요, 주요 선택 찬성 주장 중 일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생명 반대 입장에 대한 주장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돈 마퀴스라는 철학자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알렉산더 프루스트라는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돈 마퀴스는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낙태 논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살인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인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그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방법으로도 잘못되게 살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그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요? 아니요. 피해자가 그리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죽이는 것을 잘못된 일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Marquis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미래를 구성했을 모든 경험, 활동, 프로젝트,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은 피해자에게 가능한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살인을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귀중한 미래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대신하여, Marquis는 이것의 의미를 계속 고려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물은 또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면,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그 동물의 미래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견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견해는 적극적 안락사가 항상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기 상태에 있고 어차피 그들의 삶이 끝나갈 무렵 안락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통해 그들의 죽음이 재촉된다면, 당신은 귀중한 미래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미래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견해의 함의이기도 하거나, 적어도 그 자체로 이해되는 살인의 잘못에 대한 이러한 이해일 것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또한 어린이와 유아를 죽이는 것의 잘못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태아도요.

그의 견해에서 태아적 인격성 개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Marquis의 주장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태아적 인격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토론에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여기서 약간의 생명 존중의 의미를 갖는 듯하며, 심지어 그 요점을 인정합니다. 그의 설명은 또한 피임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왜? 피임약의 경우, 귀중한 미래를 박탈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별 정자 세포는 귀중한 정자 세포로서의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개별 난자는 난자 자체로서 귀중한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임에서 정자와 난자의 어떤 특정 조합이 아직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미래를 박탈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피임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Marquis의 주장에 대한 일부 비판은 성인과 태아가 동일한 개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다르죠. 당신은 태아나 접합체, 배아와 매우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요점이 어떻게든 마퀴스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응하여, 그들이 같은 사람이나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와 신생아 또는 유아 사이의 발달 과정을 통해 사람이 되더라도, 나중에 인격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같은 유기체입니다.

나는 하나의 동일한 유기체이며, 이 유기체의 역사에서 태아였을 때와 다른 시점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 알렉산더 프루스트의 주장은 그 생각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내가 한때 태아였다는 생각이지만, 다음에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퀴스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여성의 자율성, 즉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에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퀴스의 반응은 이것이 그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그 요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낙태가 표면적으로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태아를 낙태함으로써 우리는 유기체의 귀중한 미래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낙태의 심각한 도덕적 잘못에 대한 우려를 능가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퀴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프루스트(Alexander Proust)의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 모두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요점, 즉 나도 한때 태아였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도 한때 태아였습니다. 우리 각자도 한때 태아였습니다.

그리고 낙태 논쟁과 관련된 이 간단한 요점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주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때 태아였고,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면, 태아로서 나를 죽이는 것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성인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경우 태아를 죽이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이면, 태아 때 나를 유산했을 때 죽였을 것과 같은 유기체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유기체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한때 태아였고, 당신도 한때 태아였다는 생각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제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9개월 전에 임신한 유기체가, 제 경우,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다고 지적합니다. 부모님은 핵전쟁이 다가오고 세상이 끝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성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개월 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흐루쇼프와 피델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태어나기 9개월 전에 제 어머니가 잉태한 유기체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일부가 아니라 저와 함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태아와 같은 개별 유기체입니다.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 하지만 신체적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유기체와 연속적입니다.

이 잠재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쌍둥이 반대. 어떤 배반포가 쌍둥이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프루스트의 주장을 훼손합니까? 저는 지금 20대 초반인 조카 두 명, 제이크와 조쉬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단일 배반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한때 동일했던 배반포의 가치 있는 미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프루스트의 주장을 방해하지 않나요 ? 그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유기체가 미래에 분열될 가능성만 해도, 그는 그것이 260개의 배반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진정한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태아로서 나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다시 말해서, 나는 태아 때와 같은 유기체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긴 잠재적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아 때 나를 죽였다면, 피해자는 지금 나를 죽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는 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지금 나를 죽이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 태아는 지금 50대가 된 나보다 훨씬 더 길고 가치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처럼 90대까지 아주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35년이나 40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태아였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가치 있는 미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아로 죽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과 프로젝트를 앗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같은 이유로 태아를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단지 내 경우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한때 태아였습니다. 따라서 태아일 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태아일 때 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의 답변은 그런 경우는 모든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성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이 논증, 때로는 궤적 논증이라고도 불리는 논증이 결코 사람이 되지 않는 배아가 사람이 되는 배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버키치라는 사람이 이 논증을 했습니다. 프루스트가 아니라 다니엘 프로프슨이라는 사람이 이 논증, 이 반론에 프루스트를 옹호하며, 이 반론은 실패한 이유는 배아를 낙태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사람이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프루스트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반대 의견과 각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프루스트 주장은 단순하고 비기술적이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사실, 프루스트와 마르퀴스의 주장은 모두 감탄할 만큼 명확하고 비기술적입니다.

프랭크 벡위드는 낙태 논쟁과 다른 여러 도덕적 이슈에 대해 많은 글을 쓴 대단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는 또한 낙태 찬성론에 대한 좋은 답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태가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며, 임신 1기 임신 중절의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출산의 사망률이 10만 분의 1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망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10만 분의 9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출산보다 9배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려는 여성에게 낙태를 지지하는 일종의 권고가 아닐까요? Beck

with는 이것이 극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숫자를 보고 낙태가 9배 더 안전하다고 말하면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오도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낙태 생존율은 99.999%입니다. 하지만 출산에서는 99.991%입니다. 그 차이는 .008%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어떤 종류의 선택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Beckwith는 그가 말했듯이 출산에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지닌 특별한 도덕적 의무는 그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피하는 상대적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출산하는 여성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던 19세기와 비슷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험에 대한 고려를 상쇄합니다.

이제 Beckwith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Judith Jarvis Thompson의 바이올리니스트 비유에도 응답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Thompson이 자식에 대한 모든 의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당신이 당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자연스럽게 떠안게 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의도치 않게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친구야, 네 아이니까 의무가 있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네 의무야. 임신한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야 .

베크워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발주의, 자발주의 의무에 대한 생각은 가족 도덕성에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 특히 우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개념을 훼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자매가 당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식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실,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 비유에서 바이올리니스트와 태아 사이의 핵심적인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첫째, 바이올리니스트와 달리 태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비유에서 매우 인위적인 방식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쓰러뜨린 다음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연결하고 당신 사이에 혈류를 만들어서 그 의존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인위적인 것으로, 태아가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연결된 낯선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훼손한다고 Beckwith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톰슨의 주장에 대한 벡위스의 꽤 좋은 반발 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생명 존중 관점에 대한 성경적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데, 태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내 속을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으니,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내 뼈대가 당신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졌을 때, 당신의 눈은 내 형성되지 않은 몸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각 인간의 창조에 매우 친밀하게 관여하십니다. 거기에는 세심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 부모님은 제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제가 실패한 살정제, 실패한 피임의 결과라고 알려주셨지만, 신은 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감수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매우 알고 의도적으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신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와 다른 모든 경우의 태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은 그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종류의 주제가 전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형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따로 세웠다. 나는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임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해 매우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성경적 주장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어떤 경우에는 아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대한 호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기가 그녀의 태에서 뛰었다고 보고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정말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오경에 나오는 사례 연구 중 하나로, 싸우는 남자들이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조산을 했지만 심각한 부상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부상이 있을 경우,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그 구절은 일부 성경 번역에서 유산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yetzu yeladeha 는 핵심 히브리어 구문으로, 그녀의 아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산아가 나오는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산으로 올바르게 번역되거나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에게 더 이상의 부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기가 죽으면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생명 대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매우 강력한 생명 존중의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산으로 잘못 번역된다면, 사실 그것은 일종의 선택의 자유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그 히브리어 구절의 적절한 번역에 관해 많은 것이 돌아간다면, 그녀의 아이가 나옵니다, yetzu yela deha. 그리고 나서 생명 존중 관점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태아가 많은 경우 태어나기 전에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을 언급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이사야 49장, 사사기 13장, 창세기 25장에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흔한 선택의 자유 주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이나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다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흔한 주장입니다.

낙태가 불법이 되면 우리는 뒷골목 낙태 시술자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 사람이 대법원에 앉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뒷골목 낙태 시술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불법화하면 일부 여성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 주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여성에게 원치 않는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이 질문을 구걸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택이라는 책을 쓴 스콧 레이는 낙태에 대한 장에서 이 점과 다른 많은 좋은 요점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태아가 사람이고 당신이나 내가 가진 모든 도덕적 권리가 있다면,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태아는 단순히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뒷골목 임신 중절, 여성의 재정적 어려움, 원치 않는 아기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가진 별개의, 뚜렷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신 중절 논쟁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1, 낙태, 파트 2입니다.